

최근의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신약 사본에 대한 본문비평적 고찰 -P119, P120, P121, P122에 대하여-

민경식*

1. 들어가는 글

21세기에 들어 단편 파피루스 사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20세기에는 6개의 소위 “긴 파피루스 사본”에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면,¹⁾ 이제 21세기는 그 동안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100여 개의 단편사본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주로 옥시링쿠스(Oxyrhynchus)에서 발견된 사본들이 그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²⁾ 20세기에 단편사본들이 크게 주목을 받지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조교수, 신약학.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32-A00061).

- 1) 6개의 “긴 파피루스 사본”은 3개의 체스터베티 파피루스와 3개의 보드메르 파피루스, 즉 P45, P46, P47, P66, P72, P75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서는 J. R. Royse, “Scribal Habits in Early Greek New Testament Papyri”, Th. D. Dissertation (Berkeley, 1981)인데, 이것이 증보되어 NTTSD 시리즈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J. R. Royse, *Scribal Habits in Early Greek New Testament Papyri*, New Testament Tools, Studies and Documents 36 (Leiden: E. J. Brill, 2007). “단일 독법”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 로이스(Royse)의 연구 방법의 선구자는 콜웰(Colwell)이다. E. C. Colwell, “Method in Evaluating Scribal Habits: A Study of P45, P66, P75”, *Studies in Methodology in Textual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69), 106-124.
- 2) 19세기말 그렌펠(B. P. Grenfell)과 헌트(A. S. Hunt)가 발굴하여 옥스퍼드로 가져온 엄청난 양의 단편사본들이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다. 1898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한 『옥시링쿠스 파피루스』(*Oxyrhynchus Papyri*)는 2013년 1월 1일 현재, 제77권까지 출판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판될 것이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The Oxyrhynchus Papyri* (London: British Academy for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이다.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의 가치와 전망에 대해서는 민경식,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의 가치와 전망”, 『성경원문연구』 22 (2008), 7-21을 보라. 옥시링쿠스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로는 A. K. Bowman et al, (eds.), *Oxyrhynchus: A City and Its Text* (Lodon: Egypt Exploration Society, 2007)을 보라. 또한 E. J. Epp, *The New Testament Papyri at Oxyrhynchus in Their Social and Intellectual Context* (Leiden: E. J. Brill, 1997)를 보라. 그 밖에도 E. J. Epp, “The Oxyrhynchus New Testament Papyri: ‘Not Without Honor except in Their Hometow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3 (2004), 5-55 등이 있다.

못하였던 주된 이유는, 그것들을 본문비평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1999년 엘리엇(J. K. Elliott)은 다섯 개의 옥시링쿠스 사본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³⁾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4445번부터 4449번까지로, 앞의 네 개는 요한복음 사본이며, 마지막 것은 야고보서 사본이다. 요한복음 사본들은 순서대로 P106, P107, P108, P109의 그레고리-알란트 사본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야고보서 사본인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4449번은 그레고리-알란트 번호 100번을 부여받았다. 새로 출판되어 소개되는 단편사본에 대한 그의 관심은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그의 연구는 개론적인 소개에 머문다는 한계를 보인다.

2000년에 피터 헤드(P. M. Head)는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되어 최근에 발표된 사본들을 소개하였다.⁴⁾ P77과 같은 면의 조각으로 판명된 새로운 단편(P. Oxy. 4405)과 그레고리-알란트 번호 P100부터 P115에 이르기까지 총 17개의 단편사본에 대한 연구인데, 여기에 네 개의 요한복음 사본(P106, P107, P108, P109)이 포함되어 있다. 그의 연구 또한 개별 사본을 본문비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본에 대한 개론적인 소개와 집단으로서의 사본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머무르는 한계를 드러낸다.

반면에, 알란트(B. Aland)는 단편사본을 본문비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며, 이 새로운 방법론을 토대로 P77과 P101부터 P114까지를 본문비평적으로 평가하였다.⁵⁾ 그래서 각 사본의 본문의 특징과 필사자의 필사 방식을 규명함으로써 각각의 단편사본이 본문비평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알란트는 이어 위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토대로, 요한복음 초기 단편사본들을 중심으로, 이 단편들의 본문비평적 가치와 본문사적 가치를 논하였다.⁶⁾

3) J. K. Elliott, "Five New Papyri of the New Testament", *Novum Testamentum* 41 (1999), 209-213. 그 밖에도 콤포트(Comfort)는 단편사본들의 정체에 관심을 가지며, 어떤 파피루스 사본과 어떤 파피루스 사본이 사실은 같은 코덱스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려 시도하였다. P. W. Comfort, "New Reconstructions and Identifications of New Testament Papyri", *Novum Testamentum* 41 (1999), 214-230.

4) P. M. Head, "Some Recently published NT Papyri from Oxyrhynchus: An Overview and Preliminary Assessment", *Tyndale Bulletin* 51 (2000), 1-16.

5) B. Aland, "Krierien zur Beurteilung kleinerer Papyusfragmente des Neuen Testaments", A. Denaux, ed.,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nd Exegesi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2), 1-13.

6) B. Aland, "Der textkritische und textgeschichtliche Nutzen früher Papyri: demonstriert am Johannesevangelium", W. Weren and D.-A. Koch, eds., *New Developments in Textual Criticism: New Testament, Early-Christian and Jewish Literature* (Assen: Royal Van Gorcum, 2002), 19-38.

여기서는 P5, P6, P22, P28, P39, P45, P52, P80, P90, P95, P106, P107, P108, P109가 개별적으로 연구되고, 본문비평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알란트의 연구의 후속 연구로 평가될 수도 있다.⁷⁾

2004년에 피터 헤드는 요한복음 단편사본에 대한 본문비평적 연구를 시도하였는데,⁸⁾ 자신의 공관복음 단편사본 연구⁹⁾의 후속작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그는 P6, P28, P39, P45, P52, P66, P90, P95, P106, P107, P108, P109의 필사 방식을 연구하였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단일 독법에만 집중하는 한계를 보이며, 따라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로이스의 연구¹⁰⁾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다.

알란트의 방법을 발전시킨 본 연구¹¹⁾는 각 사본의 모든 이문 단위를 본문비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본”(Vorlage)의 질을 세 가지로 구분할 것이다. 첫째는 전승의 시작 본문을 상대적으로 잘 보존하는 원문에 가까운 우수한 본문인 “순수한 본문”이고, 둘째는 전승의 시작 본문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변개된 본문인 “변개된 본문”이며, 셋째는 위의 두 범주의 중간 수준의 본문인 “통상적인 본문”이다. “통상적인 본문”과 “변개된 본문”의 경우, 사본의 본문과 전승의 시작 본문 사이의 차이가, 해당 사본이 다른 본문 전통을 따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본 필사자의 부주의한 실수 때문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각 필사자의 필사 방식을 연구하고,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할 것이다. 첫째는 대본을 정확하고 엄격하게 필사한 “엄격한 필사 전승 방식”이고, 둘째는 실수이든 고의이든,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경을 가하며 대본을 필사한 “자유로운 필사 전승 방식”이며, 셋째는 상대적으로 위의 두 범주의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의 필사 방식인 “평균적인 필사 전승 방식”이다.

“순수한 본문”과 “엄격한 필사 전승 방식”에 속하는 사본은 본문을 재구성할 때 매우 영향력 있는 증거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며, “자유로운 필사 전승 방식”에 속하더라도 필사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이문들을 제외한다면, 역

7) 그러나 본 연구는 그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일부를 발전·보완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기술할 것이다.

8) P. M. Head, “The Habits of New Testament Copyists: Singular Readings in the Early Fragmentary Papyri of John”, *Biblica* 85 (2004), 399-408.

9) P. M. Head, “Some Observations on Early Papyri of the Synoptic Gospels, especially concerning the ‘Scribal Habits’”, *Biblica* 71 (1990), 240-247.

10) J. R. Roysse, *Scribal Habits in Early Greek New Testament Papyri*.

11) 방법론에 대해서는 K. S. Min, *Die früheste Überlieferung des Matthäusevangeliums (bis 3./4. Jh.): Edition und Untersuchung* (Berlin: Walter de Gruyter, 2005), 28-48, 특히 42-48을 보라. 또한 민경식, “초기 신약성서 단편사본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신약논단』 12 (2005), 157-196, 특히 182-186을 보라.

시 본문 구성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변개된 본문” 역시 본문의 전승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연구 대상을 2000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출판된 요한복음 파피루스 사본으로 제한한다.

2. 파피루스 119번(ⲑ119): P. Oxy. 4803¹²⁾

2.1. 개요

코텍스에서 떨어져 나온 낱장의 일부로, 한 면에 해당하는 2개의 연결된 조각이며, 앞면에는 요한복음 1:21-28, 뒷면에는 38-44절의 일부가 실려 있다. 원래 코텍스의 크기는 가로 약 14cm, 세로 약 25cm로 추정되며, 각 행에는 약 30-35개의 글자가 적혀 있었을 것이다. 하단에 약 1cm의 여백이 남아 있으며, 상단에는 여백이 남아 있지 않다. 훼손된 부분의 각 행에도 30-35개의 글자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전제하면, 24행이 더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한 면은 원래, 현재 남아 있는 16행과 더불어 총 40행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양 측면의 여백이 남아 있지 않은, 즉 좌우가 손상되어 떨어져 나간 형태로, 각 행마다 남아 있는 글자가 3-7개이기 때문에, 전체 본문의 재구성이 쉽지 않으며, 불완전하다. 다소 흘림체의 경향을 보이는 대문자로 기록된 이 사본의 필체는 3세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며, 전문 필사자의 것이다.

2.2. 이문

2.2.1. 탈락(omission)

ⲑ119에는 한 개의 탈락 구절이 있다. 1:25에서 NA 본문은 *και ηρωτησαν αυτον και ειπαν αυτω*인데, 사본의 앞 면 아홉 번째 줄의 손상되어 잃어버린 공간에 이 긴 문장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다. 물론 *και ηρωτησαν αυτο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본들이 몇 있다(ⲛ 등). 그러나 이 사본에는 해당 문장의 *αυτον*의 끝부분(ν)이 보이기 때문에, *και ειπαν αυτω*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ⲑ5가 이와 같은 독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

12) 이 사본의 초판(editio princeps)은 J. Chapa, “4803, Gospel of John I 21-8, 38-44”, *The Oxyrhynchus Papyri*, vol. 71 (London: British Academy for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 2007), 2-6이다.

에, 이 독법은 $\mathfrak{P}5$ 와 $\mathfrak{P}119$ 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한다.

2.2.2. 삽입(addition)

$\mathfrak{P}119$ 의 1:26에는 세 개의 단어가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NA의 $\epsilon\gamma\omega$ $\beta\alpha\pi\tau\iota\zeta\omega$ $\epsilon\nu$ $\upsilon\delta\alpha\tau\iota$ 에 해당하는 구절인데, $\mathfrak{P}119$ 의 공란은 이것만 들어가기에는 너무 크다. 아마도 063, f^{13} 등처럼 $\epsilon\gamma\omega$ 와 $\beta\alpha\pi\tau\iota\zeta\omega$ 사이에 접속사 $\mu\epsilon\nu$ 이 첨가되었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병행 단락에 대한 조화이다(마 3:11 참조). 또한 κ , Δ , θ , 063 등과 같이 $\beta\alpha\pi\tau\iota\zeta\omega$ 앞이나 뒤에 $\upsilon\mu\alpha\varsigma$ 가 첨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마태복음의 병행 단락에 대한 조화로 판단된다(마 3:11 참조).

또한 같은 절의 NA의 본문 $\mu\epsilon\sigma\omicron\varsigma$ $\upsilon\mu\omega\nu$ $\epsilon\sigma\tau\eta\kappa\epsilon\nu$ 역시 $\mathfrak{P}119$ 의 공란에는 다소 짧다. 공란의 크기로 보아, 아마도 A, C^2 , W^s , θ , ψ , 063, f^1 , f^{13} , 33, \mathfrak{M} 등과 같이 $\mu\epsilon\sigma\omicron\varsigma$ 와 $\upsilon\mu\omega\nu$ 사이에 접속사 $\delta\epsilon$ 가 첨가되었을 것이다. $\mathfrak{P}59$, $\mathfrak{P}66$, $\mathfrak{P}75$, κ , B, C^* , L, N, T, W^s , θ , 083, f^1 , 33 등에는 접속사 $\delta\epsilon$ 가 없다. 이러한 단순한 삽입은 필사자들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2.2.3. 치환(transposition)

1:42에서 NA의 $\epsilon\mu\beta\lambda\epsilon\psi\alpha\varsigma$ $\alpha\upsilon\tau\omega$ \omicron $\iota\eta\sigma\omicron\upsilon\varsigma$ $\epsilon\iota\pi\epsilon\nu$ 에 해당하는 $\mathfrak{P}119$ 의 독법을 분명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다. 다만 뒷면의 열한 번째 줄과 열두 번째 줄에 걸친 공란에 NA의 본문이 절절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열한 번째 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 $\eta\gamma\alpha\gamma\epsilon\nu$ 다음에 오는 $\alpha\upsilon\tau\omicron\nu$ 의 뒷부분 네 글자와 $\pi\rho\omicron\varsigma$ 의 첫 글자이다(α) $\upsilon\tau\omicron\nu$ π [$\rho\omicron\varsigma$]). 그 다음 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첫 글자는 오메가(ω)인데, 이 문맥에서는 $\alpha\upsilon\tau\omega$ 의 마지막 글자로 추정되며, 바로 $\sigma\upsilon$ $\epsilon\iota$ [$\sigma\iota\mu\omega\nu$] 이어진다. 그렇다면 $\mathfrak{P}119$ 에는 \omicron $\iota\eta\sigma\omicron\upsilon\varsigma$ $\epsilon\iota\pi\epsilon\nu$ 이 생략되어 있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 독법은 $\mathfrak{P}119$ 의 공란에 비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각 행마다 30-35자가 있었다면, 열한 번째 줄 π (π)와 다음 줄의 오메가(ω) 사이에 25-30개의 글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π [$\rho\omicron\varsigma$ $\tau\omicron\nu$ $\overline{\iota\eta\nu}$ $\epsilon\mu\beta\lambda\epsilon\psi\alpha\varsigma$ $\alpha\upsilon\tau$] ω $\sigma\upsilon$ $\epsilon\iota$ 는 너무 짧다. $\epsilon\mu\beta\lambda\epsilon\psi\alpha\varsigma$ 앞에 $\kappa\alpha\iota$ 가 들어가거나(W^s 등) 뒤에 $\delta\epsilon$ 가 들어간다고 해도($\mathfrak{P}75$, Δ , θ , f^{13} 등) 여전히 짧다. 반면에 $\alpha\upsilon\tau\omega$ 앞에 \omicron $\iota\eta\varsigma$ $\epsilon\iota\pi\epsilon\nu$ 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면, $\mathfrak{P}119$ 의 본문은 π [$\rho\omicron\varsigma$ $\tau\omicron\nu$ $\overline{\iota\eta\nu}$ $\epsilon\mu\beta\lambda\epsilon\psi\alpha\varsigma$ \omicron $\iota\eta\varsigma$ $\epsilon\iota\pi\epsilon\nu$ $\alpha\upsilon\tau$] ω $\sigma\upsilon$ $\epsilon\iota$ 일 것이다(마 19:26 참조). 따라서 $\mathfrak{P}119$ 에서 \omicron $\iota\eta\varsigma$ $\epsilon\iota\pi\epsilon\nu$ 과 $\alpha\upsilon\tau\omega$ 의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여기서 의미는 변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문은 필사자들의 필사 허용 범위에 속한다.

2.3. 기타 이문 단위

2.3.1. $\mathfrak{P}119$ 가 NA 본문을 지지하는 이문 단위

1:22에서 $\mathfrak{P}66^c$ 와 $\mathfrak{P}75$ 에는 $\tau\iota\varsigma$ 앞에 $\sigma\upsilon$ 가 첨가되어 있는데, $\mathfrak{P}119$ 의 네 번째 줄에는 $\sigma\upsilon$ 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는 $\mathfrak{P}119$ 가 NA본문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6에서 일부 사본($\mathfrak{P}75$, f^1 등)은 $\lambda\epsilon\gamma\omega\nu$ 을 생략하는데, $\mathfrak{P}119$ 는 거의 대다수의 사본과 함께 $\lambda\epsilon\gamma\omega\nu$ 을 증거한다. 1:27에서 $\omicron\ \omicron\pi\iota\sigma\omega\ \mu\omicron\upsilon\ \epsilon\rho\chi\omicron\mu\epsilon\nu\omicron\varsigma$ 앞에 일부 사본(A, C^3 , (ψ), f^{13} , \mathfrak{M} 등)은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epsilon\sigma\tau\iota\nu$ 이 첨가되어 있는데, $\mathfrak{P}119$ 의 공란에는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epsilon\sigma\tau\iota\nu$ 이 들어갈 공간은 없다. 물론 이 구절이 공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aleph^* 나 B처럼 관사 \omicron 가 생략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여기서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epsilon\sigma\tau\iota\nu$ 의 삽입은 비잔틴본문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절에서 일부 사본(A, C^3 , (θ), f^{13} , \mathfrak{M} 등)에는 $\epsilon\rho\chi\omicron\mu\epsilon\nu\omicron\varsigma$ 뒤에 $\omicron\varsigma\ \epsilon\mu\pi\rho\sigma\theta\epsilon\nu\ \mu\omicron\upsilon\ \gamma\epsilon\gamma\omicron\nu\epsilon\nu$ 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 구절 역시 $\mathfrak{P}119$ 의 공란에 들어갈 공간이 없으므로, 이 사본은 NA 본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위의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epsilon\sigma\tau\iota\nu$ 의 삽입과 마찬가지로 $\omicron\varsigma\ \epsilon\mu\pi\rho\sigma\theta\epsilon\nu\ \mu\omicron\upsilon\ \gamma\epsilon\gamma\omicron\nu\epsilon\nu$ 의 삽입 역시 비잔틴본문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mathfrak{P}119$ 는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역시 같은 절에서 $\epsilon\gamma\omega$ 는 본문비평적 관점에서 불확정적 본문이다. 그래서 NA 본문에 꺾쇠괄호 안에 묶여 있는데, 이는 편집자들이 본문의 최종 판단을 유보하였음을 의미한다.¹³⁾ 적지 않은 중요한 사본에는 $\omicron\upsilon\kappa\ \epsilon\iota\mu\iota$ 다음에 $\epsilon\gamma\omega$ 가 없는데($\mathfrak{P}66^*$, $\mathfrak{P}75$, $\mathfrak{P}120$, \aleph , C, L, f^{13} 등), 마태의 병행 단락(마 3:11)에도 $\epsilon\gamma\omega$ 가 없다는 점에서, $\epsilon\gamma\omega$ 가 없는 독법은 마태복음에 대한 조화로 보인다. 반면, 이 구절에서 $\epsilon\gamma\omega$ 를 지지하는 사본의 무게 역시 무겁다($\mathfrak{P}66^c$, B, N, T, W^s , ψ , 083 등). 이들 사본과 더불어 $\mathfrak{P}119$ 역시 $\epsilon\gamma\omega$ 를 증거한다. 일부 사본(A, θ , f^1 , \mathfrak{M} 등)에는 자리가 바뀐 상태로 $\epsilon\gamma\omega$ 가 들어 있다($\epsilon\gamma\omega\ \omicron\upsilon\kappa\ \epsilon\iota\mu\iota$). 따라서 $\mathfrak{P}119$ 는 $\epsilon\gamma\omega$ 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위와 같은 절에서 일부 사본에는 $\omicron\upsilon\kappa\ \epsilon\iota\mu\iota\ \epsilon\gamma\omega$ 다음에 $\alpha\acute{\xi}\iota\omicron\varsigma$ 대신에 $\iota\kappa\alpha\nu\omicron\varsigma$ 가 오는데($\mathfrak{P}66$, $\mathfrak{P}75$ 등), 이것 역시 위의 $\epsilon\gamma\omega$ 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의 병행 단락의 영향으로 보인다(마 3:11). $\mathfrak{P}119$ 는 NA의 본문($\alpha\acute{\xi}\iota\omicron\varsigma$)을 지지한다. 계속 같은 절의 끝에, 즉 $\upsilon\pi\omicron\delta\eta\mu\alpha\tau\omicron\varsigma$ 뒤에 소수의 사본(N 등)에 긴 삽입($\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upsilon\mu\alpha\varsigma\ \beta\alpha\pi\tau\iota\sigma\epsilon\iota\nu\ \pi\upsilon\epsilon\nu\mu\alpha\tau\iota\ \alpha\gamma\iota\omega\ \kappa\alpha\iota\ \pi\upsilon\rho\iota$)이 있는데, 이 사본의 공란에는 이러한 긴 본문이 들어갈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삽입은 마태복음의 병행 단락에 대한 조화이며(마 3:11), $\mathfrak{P}119$ 는 이러한 삽입이 없는 NA의 본문을 지지한다. 1:28에서 $\mathfrak{P}119$ 는 NA의 본문인 $\beta\eta\theta\alpha\nu\iota\alpha$ 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본

13)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2.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237.

의 공란은 다른 이문들(Βηθαβαρα 또는 Βηθαραβα)이 들어가기에 다소 공간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1:39에서 어떤 사본(A)은 δεκατη 대신에 εκτη로 되어 있는데, $\mathfrak{P}119$ 는 분명하게 δεκατη를 지지한다. 1:42의 ηγαγεν 앞에 어떤 사본들에는 και(A W^s, θ , ψ , f¹³, 33, \mathfrak{m} 등) 또는 ουτος($\mathfrak{P}66^c$, G, f¹ 등)가 첨가 되어 있는데, $\mathfrak{P}119$ 의 공란에는 이러한 삽입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본이 NA의 본문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절에서 $\mathfrak{P}119$ 의 공란의 크기는 $\omega\nu\nu\alpha$ (A, B², ψ , f¹, f¹³, \mathfrak{m} 등)보다는 NA의 독법인 $\omega\nu\nu\nu$ 를 지지한다($\mathfrak{P}66$, $\mathfrak{P}75$, $\mathfrak{P}106$, \mathfrak{x} , B*, L, W^s, 33 등). 물론 $\omega\nu\nu\alpha$ (θ , 1241 등)일 수도 있으나, 사본상의 증거가 미약한 $\omega\nu\nu\alpha$ 보다는 $\omega\nu\nu\nu$ 일 가능성이 더 크다.

2.3.2. $\mathfrak{P}119$ 의 본문을 추측할 수 없는 이문 단위

위의 이문 단위 외에도 몇 개의 이문 단위가 NA 본문비평장치에 소개되는데, $\mathfrak{P}119$ 의 독법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가령, 1:24에서 απεσταλμενοι 앞에 관사 호이(οι)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분명하다. NA 본문에는 관사 호이(οι)가 없는 반면($\mathfrak{P}66$, $\mathfrak{P}75$, \mathfrak{x}^* , A*, B, C*, L, T, ψ , 086 등), 또 다른 적지 않은 사본에는 관사가 있다(\mathfrak{x}^2 , A², C³, W^s, θ , 0234, f¹, f¹³, \mathfrak{m} 등). 또한 1:26에서 μεσος υμων 다음에 NA의 독법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사본처럼 εσθηκει이었는데, 아니면 일부 사본(\mathfrak{x} , B)처럼 σθηκει이었는데 알 수 없다. 1:39에서는 $\mathfrak{P}119$ 의 독법이 NA를 지지하는 일부 사본($\mathfrak{P}5^{\text{vid}}$, $\mathfrak{P}66$, $\mathfrak{P}75$, B, C*, L, W^s, ψ^c , 083 등)처럼 οψεσθε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일부 사본(\mathfrak{x} , A, C³, θ , f¹³, \mathfrak{m} 등)처럼 ιδετε이었는데 알 수 없다. 1:39에서 ηλθαν 다음에 ουν이 일부 사본(f¹, \mathfrak{m} 등)에 생략되어 있는데, $\mathfrak{P}119$ 의 독법은 알 수 없다. 1:41에서 ουτος 뒤에 $\mathfrak{P}119$ 가 NA의 독법인 πρωτον을 지지하는지 다른 일부 사본(\mathfrak{x}^* , L, W^s, \mathfrak{m})의 독법인 πρωτος를 지지하는지도 알 수 없다.

2.4. 분석

$\mathfrak{P}119$ 에는 하나의 단일 독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42에 해당하는 뒷면 열 번째 줄에서 열한 번째 줄 사이의 공란에 π[ρος τον ιην εμβλεψας ο ιης ειπεν αυτ]ω ου ει이 들어간다면,¹⁴⁾ $\mathfrak{P}119$ 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독법에 대한 최초의 증거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대치는 대본(Vorlage)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필사자의 실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글자가 아니라 내용을 필사하는 경우 쉽게 생기는 이문이다.

14) 앞의 “대치”를 참조하라.

¶119에는 조화(harmonization)에 해당하는 이문이 하나 발견된다. 1:26에서 NA의 $\epsilon\gamma\omega\ \beta\alpha\pi\tau\iota\zeta\omega\ \epsilon\upsilon\ \upsilon\delta\alpha\tau\iota$ 에 해당하는 구절이 ¶119에서 $\epsilon\gamma\omega\ \mu\epsilon\upsilon\ \upsilon\mu\alpha\varsigma\ \beta\alpha\pi\tau\iota\zeta\omega\ \epsilon\upsilon\ \upsilon\delta\alpha\tau\iota$ 로 되어 있다면,¹⁵⁾ 이는 마태복음의 병행 단락에 대한 조화로 이해될 수 있다(마 3:11). 병행 단락에 대한 조화는 초기 필사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119에는 거룩한 이름들(nomina sacra)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훼손된 부분(공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⁶⁾ 1:23에서 $\overline{\kappa\varsigma}$ 가 사용되었을 것이며, 1:25와 41절에서는 $\overline{\chi\varsigma}$ 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overline{\iota\eta\varsigma}$ 는 1:42에서 두 차례(한 번은 대격인 $\overline{\iota\eta\eta}$), 1:43에서 한 차례 사용되었을 것이다. $\overline{\iota\eta\varsigma}$ 와 $\overline{\kappa\varsigma}$ 와 $\overline{\chi\varsigma}$ 는 $\overline{\theta\varsigma}$ 와 더불어 초기부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거룩한 이름들이다.

2.5. 특징

초기 사본에 속하는 ¶119에는 사본의 크기에 비해 이문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한 이문 단위(1:25)에서 세 단어가 생략되었으며, 두 개의 이문 단위(1:27의 $\epsilon\gamma\omega\ \beta\alpha\pi\tau\iota\zeta\omega\ \epsilon\upsilon\ \upsilon\delta\alpha\tau\iota$ 와 같은 절의 $\mu\epsilon\sigma\sigma\varsigma\ \upsilon\mu\omega\upsilon\ \epsilon\sigma\tau\eta\kappa\epsilon\upsilon$)에서 세 단어가 첨가되었다. 그리고 한 이문 단위(1:42)에서 치환이 일어났을 뿐이다. 이 정도 크기의 파편에서 이 정도의 이문은 적은 것도 아니지만, 많은 것 역시 아니다. 그 밖의 많은 이문 단위에서 ¶119는 NA의 본문을 지지한다.

¶119는 소위 “서방본문”이라고 할 만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전형적인 비잔틴 독법¹⁷⁾을 증거하지 않으므로, 비잔틴본문에 속하지도 않는다.

1:25에서 $\kappa\alpha\iota\ \epsilon\iota\pi\alpha\upsilon\ \alpha\upsilon\tau\omega$ 의 탈락은 오직 ¶5와 ¶119 두 사본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이 이문은 이 두 사본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한다. 물론 두 사본이 같은 대본을 베꼈든지 두 사본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 두 사본에는 상이한 독법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 사본에만 $\kappa\alpha\iota\ \epsilon\iota\pi\alpha\upsilon\ \alpha\upsilon\tau\omega$ 이 탈락되어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이 구절에서 두 사본이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119의 대본은 “통상적인 본문”을 전승하는 사본 그룹에 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사자는 이 대본을 중간 수준으로 필사하

15) 앞의 “삽입”을 참조하라.

16) 거룩한 이름들(nomina sacra) 목록은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헬라어에서 한글까지』(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 23-24를 보라.

17) 1:27에서 $\omicron\ \omicron\pi\lambda\omega\ \mu\omicron\upsilon\ \epsilon\rho\chi\omicron\mu\epsilon\iota\omicron\varsigma$ 앞에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epsilon\sigma\tau\iota\upsilon$ 가 삽입된 것(A, C³, (Ψ), f¹³, **π** 등), 또 같은 절에서 $\epsilon\rho\chi\omicron\mu\epsilon\iota\omicron\varsigma$ 뒤에 $\omicron\varsigma\ \epsilon\mu\pi\rho\sigma\theta\epsilon\upsilon\ \mu\omicron\upsilon\ \gamma\epsilon\gamma\omicron\upsilon\epsilon\iota$ 가 삽입된 것(A, C³, (Θ), f¹³, **π** 등)은 전형적인 비잔틴 본문이다.

였으므로, 이 사본의 필사 방식은 “평균적인 필사 전송”에 속한다.

3. 파피루스 120번(P120): P. Oxy. 4804¹⁸⁾

3.1. 개요

한 면에 해당하는 세 개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코텍스의 일부이며, 요한복음 1:25-28, 33-38, 42-44의 일부가 실려 있다. 상단의 큰 파편과 하단의 작은 두 개의 파편 사이에 약 14-15행이 소실되었다. 좌우측의 여백으로 보아, 앞면에는 각 행의 끝부분이 남아 있고, 뒷면에는 반대로 각 행의 시작 부분이 남아 있다. 원래 코텍스의 크기는 가로 약 11cm, 세로 약 20cm로 추정되며, 각 행에는 약 28개의 글자가 적혀 있고, 소실된 부분에도 각 행마다 평균적으로 28개의 글자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전제하면, 한 면은 27행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4세기의 필체인 성서 대문자(Biblical Majuscule)로 기록되었으며, 전문 필사자의 것이다.

3.2. 이문

3.2.1. 탈락(omission)

P120은 아래와 같이 3개의 탈락 구절이 있다. 1:26에서는 ο ιωαννης 다음의 λεγων이 생략되어 있는데(P75, f¹ 등), 본문의 뜻에는 차이가 없다. 필사자의 사소한 실수에 따른 생략으로 보인다.

1:27에는 본문비평적으로 불확정적인 구절이 있다. 일부 사본(P66*, P75, x, C, L, f¹³ 등)에 εγω가 없으며, 일부 사본(P66^c, P119, B, N, T, W^s, 083 등)에는 εγω가 나타나는데, 외적 판단기준에 따르면 두 독법은 대등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다. NA 편집자들은 본문의 최종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미로 εγω를 꺾쇠괄호 안에 놓았다. P120의 공란에는 εγω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본은 εγω가 없는 독법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사본(A, θ, f¹, m 등)처럼 εγω가 ουκ ειμι 앞에 위치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P120의 1:35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παλιν이 생략되어 있다. 대다수의 사본에는 τη επαυριον 다음에 παλιν이 있는데, 이 사본은 소실된 부분의 공란에는

18) 이 사본의 초판(editio princeps)은 J. Chapa, “4804, Gospel of John I 25-8, 33-8, 42-4”, *The Oxyrhynchus Papyri*, vol. 71, 6-9이다.

παλιν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5^{vid}, Ⓟ75, Γ, ψ 등). 필사자의 사소한 실수로 보인다.

3.2.2. 삽입(addition)

1:34에서 NA의 본문은 ο υιος του θεου로 되어 있는데, Ⓟ120에는 ο υιος 다음에, 불분명하지만 정관사로 보이는 오미크론(ο)의 일부가 보인다. 무엇인가가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단락의 사본 전통에는 ο υιος 다음에 정관사가 오는 독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일부 라틴어 사본과 콥트어 사본의 이문인 “electus filius”((a), ff^{2c}, sa)를 고려할 때, 어쩌면 ο υιος ο εκλεκτος του θεου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가 맞는다면, ο εκλεκτος가 삽입된 것이다. 그러나 다음 면 첫 줄에 이어지는 본문이 του $\overline{\theta\upsilon}$ 이고, 공란에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으로 보아, ο εκλεκτος의 삽입을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쩌면 사본의 본문은 ο υιος ο του θεου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관사 ο가 삽입된 것이다. 필사자의 실수로 인한 변개이다.

3.2.3. 대치(substitution)

1:26에서 Ⓟ120은 NA의 본문인 εστηκει(Ⓟ66, A, C, T^{vid}, W^s, θ, ψ, f¹³, m 등) 대신에 ειστηκει를 증거한다. 물론 ειστηκει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첫 글자만 보이는데, 엘립론(ε) 대신 이오타(ι)로 시작된다. 이것은 ειστηκει(Ⓟ75, (Ⓢ) 등)라는 독법을 지지한다. ει를 ι로 쓰는 이오타시즘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에 다른 어떤 사본들(B, L, 083, f¹ 등)은 στηκει으로 되어 있다.

1:37에서 다수의 사본과 NA에는 και ηκουσαν οι δυο μαθηται αυτου λαλουντος και ηκολουθησαν τω Ιησου로 되어 있다. 그런데 Ⓟ120에는 και ακουσαντες οι δυο μαθηται αυτου λαλουντος ηκολουθησαν τω $\overline{\iota\eta\upsilon}$ 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주동사인 ηκουσαν이 분사 ακουσαντες로 바뀌었고 두 번째 주동사 바로 앞의 και가 탈락함으로써, 주동사가 두 개 있는 복문이 분사구문으로 바뀌었다. 문장의 의미의 변화는 없으며, 문체가 매끄러워졌다.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베끼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옮기는 과정에서 쉽게 일어나는 실수이다.

3.3. 기타 이문 단위

3.3.1. P120가 NA 본문을 지지하는 이문 단위

1:26에서 소수의 사본(f^{13} 등)에는 $\epsilon\gamma\omega$ 다음에 $\mu\epsilon\nu$ 이, $\mu\epsilon\sigma\sigma$ 다음에 $\delta\epsilon$ 가 추가되어 있으며, 또 일부 사본(A, C^2 , W^s , θ , ψ , f^1 , \mathfrak{M} 등)에는 $\mu\epsilon\nu$ 의 추가 없이 $\mu\epsilon\sigma\sigma$ 다음에만 $\delta\epsilon$ 가 추가되어 있는데, P120은 $\mu\epsilon\nu$ 과 $\delta\epsilon$ 가 없는 NA본문의 독법을 지지한다(P59, P66, P75, \mathfrak{K} , B, C^* , L, 083 등). 1:27에서 적지 않은 사본(A, C^3 , (ψ), f^{13} , \mathfrak{M} 등)에는 \omicron $\omicron\pi\iota\omega$ $\mu\omicron\upsilon$ 앞에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epsilon\sigma\tau\iota\nu$ 이 있는데, 이 사본에는 NA 본문처럼 이러한 삽입이 없다.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epsilon\sigma\tau\iota\nu$ 의 첨가는 비잔틴 본문의 특징이다. 같은 절에서 일부 사본(\mathfrak{K}^* , B 등)에는 관사(\omicron)가 탈락되어 있는데, 이 사본은 관사를 분명하게 증거한다. 역시 같은 절에서 일부 사본(A, C^3 , (θ), f^1 , \mathfrak{M} 등)에는 $\epsilon\rho\chi\omicron\mu\epsilon\nu\omicron\varsigma$ 다음에 $\omicron\varsigma$ $\epsilon\mu\pi\rho\sigma\theta\epsilon\nu$ $\mu\omicron\upsilon$ $\gamma\epsilon\gamma\omicron\nu\epsilon\nu$ 이라는 네 단어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 사본의 공란에는 이러한 긴 삽입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므로, 이 사본은 NA본문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P5, P66, P75, P119, \mathfrak{K} , B, C^* , L, T, W^s , ψ , 083, f^1 , f^{13} 등). 바로 앞의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epsilon\sigma\tau\iota\nu$ 의 첨가와 마찬가지로 $\omicron\varsigma$ $\epsilon\mu\pi\rho\sigma\theta\epsilon\nu$ $\mu\omicron\upsilon$ $\gamma\epsilon\gamma\omicron\nu\epsilon\nu$ 의 첨가 역시 비잔틴 본문의 특징인데, P120에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epsilon\sigma\tau\iota\nu$ 과 $\omicron\varsigma$ $\epsilon\mu\pi\rho\sigma\theta\epsilon\nu$ $\mu\omicron\upsilon$ $\gamma\epsilon\gamma\omicron\nu\epsilon\nu$ 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본이 비잔틴 계열의 본문을 증거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같은 절인 27절에서 일부 사본(P66, P75 등)에는 $\alpha\epsilon\iota\omicron\varsigma$ 대신에 $\iota\kappa\alpha\nu\omicron\varsigma$ 가 사용되는데, P120은 NA의 본문인 $\alpha\epsilon\iota\omicron\varsigma$ 를 지지한다. $\iota\kappa\alpha\nu\omicron\varsigma$ 는 병행 단락(마 3:11)의 영향으로 생긴 이문으로 판단된다. 이 사본에는 27절 끝에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upsilon\mu\alpha\varsigma$ $\beta\alpha\pi\tau\iota\sigma\epsilon\iota$ $\epsilon\nu$ $\pi\upsilon\epsilon\nu\mu\alpha\tau\iota$ $\alpha\gamma\iota\omega$ $\kappa\alpha\iota$ $\pi\upsilon\rho\iota$ 라는 긴 삽입(N 등)이 들어있지 않다. 1:28에서는 일부 사본(P66, \mathfrak{K} 등)이 $\epsilon\gamma\epsilon\nu\epsilon\tau\omicron$ $\epsilon\nu$ $\beta\eta\theta\alpha\nu\iota\alpha$ 로 되어 있는데, 이 사본은 NA 본문의 독법인 $\epsilon\nu$ $\beta\eta\theta\alpha\nu\iota\alpha$ $\epsilon\gamma\epsilon\nu\epsilon\tau\omicron$ 를 지지한다. 다만 $\beta\eta\theta\alpha\nu\iota\alpha$ 라는 지명의 이름은 불분명하다. 공란의 크기로 볼 때, $\beta\eta\theta\alpha\beta\alpha\rho\alpha$ (C^2 , K, T, ψ^c , 083, f^1 , f^{13} 등)나 $\beta\eta\theta\alpha\rho\alpha\beta\alpha$ (\mathfrak{K}^2 등) 보다는 $\beta\eta\theta\alpha\nu\iota\alpha$ 가 더 개연성이 높다. 1:33에서 몇몇 사본(P75^c vid, C^* 등)에는 $\epsilon\nu$ $\pi\upsilon\epsilon\nu\mu\alpha\tau\iota$ $\alpha\gamma\iota\omega$ 다음에 $\kappa\alpha\iota$ $\pi\upsilon\rho\iota$ 가 있는데, 이 사본의 공란에는 이러한 삽입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따라서 이 사본은 NA의 독법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kappa\alpha\iota$ $\pi\upsilon\rho\iota$ 의 첨가는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에 대한 조화이다(마 3:11). 1:36에서 몇몇 사본(P66*, C^* , (W^s) 등)에는 36절 마지막에 긴 본문, 즉 \omicron $\alpha\iota\rho\omega\nu$ $\tau\eta\nu$ $\alpha\mu\alpha\rho\tau\iota\alpha\nu$ $\tau\omicron\upsilon$ $\kappa\omicron\sigma\mu\omicron\upsilon$ 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 사본에는 이러한 삽입의 흔적이 없다. 이러한 첨가는 1:29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근접 문맥에 대한 조화 현상이다. 1:37에서 몇몇 사본(P66, P75, C^* , L, W^s , ψ , 083 등)에는 $\omicron\iota$ $\delta\upsilon\omicron$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mu\alpha\theta\eta\tau\alpha\iota$ 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본들(A, C^3 , θ , f^1 , f^{13} , \mathfrak{M} 등)에는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omicron\iota$ $\delta\upsilon\omicron$ $\mu\alpha\theta\eta\tau\alpha\iota$ 로 되어 있는데, 이 사본은 $\omicron\iota$ $\delta\upsilon\omicron$ $\mu\alpha\theta\eta\tau\alpha\iota$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라는 NA의 본

문을 지지한다(with $\mathfrak{P}55^{vid}$, \mathfrak{K} , B 등). 1:38에서 일부 사본(\mathfrak{K}^* , ψ , f^1 등)에는 $\sigma\tau\alpha\phi\epsilon\iota\varsigma$ 다음에 $\delta\epsilon$ 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사본의 공란의 크기는 $\sigma\tau\alpha\phi\epsilon\iota\varsigma$ 다음에 오는 $\delta\epsilon$ 가 들어갈 자리가 충분하다. 사본은 NA본문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2. $\mathfrak{P}120$ 의 본문을 추측할 수 없는 이문 단위

1:35에서 일부 사본($\mathfrak{P}75$, B, L 등)에는 $\text{I}\omega\alpha\nu\eta\varsigma$ 앞에 정관사 \omicron 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사본은 훼손된 공란의 크기로 보아 $\text{I}\omega\alpha\nu\eta\varsigma$ 앞에 정관사 \omicron 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다.

3.4. 분석

$\mathfrak{P}120$ 에는 두 개의 단일 독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4에서 NA의 본문에는 \omicron $\nu\iota\omicron\varsigma$ $\tau\omicron\upsilon$ $\theta\epsilon\omicron\upsilon$ 로 되어 있는데, 사본에는 \omicron $\nu\iota\omicron\varsigma$ 와 다음 면의 $\tau\omicron\upsilon$ $\theta\epsilon\omicron\upsilon$ 사이에 무엇인가가 삽입되어 있다.¹⁹⁾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사이에 무엇인가 삽입된 독법은 그리스어 사본 전통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mathfrak{P}120$ 의 단일 독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mathfrak{P}120$ 은 1:37에서 $\eta\kappa\omicron\upsilon\sigma\alpha\nu$... $\kappa\alpha\iota$ 대신에 $\alpha\kappa\omicron\upsilon\sigma\alpha\nu\tau\epsilon\varsigma$ 이 쓰인다. 첫 번째 주동사인 $\eta\kappa\omicron\upsilon\sigma\alpha\nu$ 이 분사 $\alpha\kappa\omicron\upsilon\sigma\alpha\nu\tau\epsilon\varsigma$ 로 바뀌고 두 번째 주동사 $\eta\kappa\omicron\lambda\omicron\upsilon\theta\eta\sigma\alpha\nu$ 바로 앞의 $\kappa\alpha\iota$ 가 탈락함으로써, 복문이 분사구문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이문은 다른 사본에서 발견되지 않는 $\mathfrak{P}120$ 의 단일 독법이다.²⁰⁾ 작은 파편에 단일 독법이 두 개 발견되는데, 엄격하지 못한 필사자의 실수를 반영한다.

$\mathfrak{P}120$ 에는 두 개의 거룩한 이름들이 나타나는데, 1:34에서 $\overline{\theta\upsilon}$ 가, 38절에 $\overline{\eta\varsigma}$ 가 사용되었다. 후대에는 $\nu\iota\omicron\varsigma$ 도 거룩한 이름으로 인정되어 $\overline{\upsilon\varsigma}$ 로 기록되었는데, $\mathfrak{P}120$ 에서는 34절의 $\nu\iota\omicron\varsigma$ 가 그냥 풀린 채로 길게 적혀 있다.²¹⁾

3.5. 특징

$\mathfrak{P}120$ 에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탈락 구절이 있고,²²⁾ 하나의 첨가가 있으며,

19) 위의 “삽입”을 참조하라.

20) 위의 “대치”를 참조하라.

21) 예수를 가리키지 않는 경우에도 $\nu\iota\omicron\varsigma$ 는 일반적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취급되어 축약된 형태 ($\overline{\upsilon\varsigma}$)로 기록되었다.

22) 꺾쇠괄호로 묶여 있는 $\epsilon\gamma\omega(1:27)$ 가 원문에 속한다면, 3개의 탈락 구절이 있는 것이고, 이것

대치가 두 군데에서 일어났다. 더군다나 두 개의 단일 독법이 발견된다. 작은 파편에서 이 정도의 이문이 발견되는 것은 매우 많은 것은 아니나, 그래도 평균 이상이다.

¶120은 ¶119와 마찬가지로 소위 “서방본문”이라고 할 만한 특징을 보이지 않으며, 전형적인 비잔틴 독법²³⁾을 증거하지 않으므로, 비잔틴본문에 속하지도 않는다. ¶120에 발견되는 이문들은 대체로 필사자의 사소한 실수에 기인하나, 여전히 숙련된 필사자에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

¶120의 대본의 것으로 추정되는 본문과 ¶120에 드러나는 이문들을 고려할 때, ¶120의 대본은 “순수한 본문”을 전승하는 사본 그룹에 속한 것으로 판단되며, 필사자는 이 대본을 다소 자유롭게 필사하였으므로, 이 사본의 필사 방식은 “자유로운 필사 전승”에 속한다.

4. 파피루스 121번(¶121): P. Oxy. 4805²⁴⁾

4.1. 개요

3세기의 사본으로 앞면에는 요한복음 19:17-18, 뒷면에는 25-26절의 일부가 실려 있다. 코텍스에서 떨어져 나온 낱장의 일부로, 한 면의 아랫부분에 해당한다. 원래 코텍스의 크기는 가로 약 12cm, 세로 약 28cm로 추정된다. 뒷면은 각 행에 약 22-23개의 글자가 적혀 있었을 것이며, 앞면에는 각 행에 다소 더 많은 글자가 적혀 있었을 수도 있다. 대략적으로 각 행에 약 25개의 글자가 적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단에는 약 2.5cm의 여백이 남아 있는데 앞면과 뒷면 사이의 본문을 채워 넣는다면, 한 면은 약 37행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사본의 좌우가 손상되어 떨어져 나간 형태로, 각 행마다 남아 있는 글자가 6-8개이기 때문에, 전체 본문의 재구성이 쉽지는 않다. 다소 기울어진 대문자로 기록되었으며, 필체는 3세기 초반의 특징을 보이며, 전문 필사자의 것이다.

이 원문에 속하지 않는다면 2개의 탈락 구절이 있는 것이다. 위의 “탈락”을 참조하라.

23) 1:27에서 ο οπισω μου ερχομενος 앞에 αυτος εστιν이 삽입된 것(A, C³, (Ψ), f¹³, m 등), 또 같은 절에서 ερχομενος 뒤에 ος εμπροσθεν μου γεγομεν이 삽입된 것(A, C³, (Θ), f¹³, m 등)은 전형적인 비잔틴 본문이다.

24) 이 사본의 초판(editio princeps)은 J. Chapa, “4805, Gospel of John XIX 17-18, 25-6”, *The Oxyrhynchus Papyri*, vol. 71, 9-11이다.

4.2. 이문

¶121에는 오직 하나의 이문이 발견되는데, 삽입이다. 19:18에서 ¶121의 공란에는 $\delta\upsilon\omicron$ 와 첫 번째 $\epsilon\nu\tau\epsilon\upsilon\theta\epsilon\nu$ 사이에 무엇인가가 첨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mu\epsilon\tau$ 이후의 공란에는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alpha\lambda\lambda\omicron\upsilon\varsigma\ \delta\upsilon\omicron\ \epsilon\nu\tau\epsilon\upsilon\theta\epsilon\nu\ \kappa\alpha\iota\ \epsilon\nu\tau\epsilon\upsilon\theta\epsilon\nu$ 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본에서 관찰되는 부분이 첫 번째 $\epsilon\nu\tau\epsilon\upsilon\theta\epsilon\nu$ 이라고 하기에는 공란이 너무 크고, 두 번째 $\epsilon\nu\tau\epsilon\upsilon\theta\epsilon\nu$ 라고 하기에는 공란이 너무 작다. 더군다나 $\epsilon\nu\tau\epsilon\upsilon\theta\epsilon\nu$ 의 앞 단어가 알파(α)로 끝난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첨가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알파(α)로 끝나는 짧은 단어가 첫 번째 $\epsilon\nu\tau\epsilon\upsilon\theta\epsilon\nu$ 앞에 삽입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어쩌면 삽입된 단어가 $\epsilon\nu\alpha$ 일 수 있을까?

4.3. 기타 이문 단위

4.3.1. ¶121가 NA 본문을 지지하는 이문 단위

19:17에서 소수의 사본(L, ψ 등)에는 $\omicron\ \lambda\epsilon\gamma\epsilon\tau\alpha\iota\ \epsilon\beta\beta\alpha\iota\sigma\tau\iota\ \Gamma\omicron\lambda\gamma\omicron\theta\alpha$ 대신에 $\epsilon\beta\beta\alpha\iota\sigma\tau\iota\ \delta\epsilon$ 로 되어 있는데, ¶121은 $\epsilon\beta\beta\alpha\iota\sigma\tau\iota$ 다음에 $\Gamma\omicron\lambda\gamma\omicron\theta\alpha$ 의 첫 글자인 감마(Γ)가 보인다는 점에서 NA의 본문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4.3.2. ¶121의 본문을 추측할 수 없는 이문 단위

19:25에서 ¶121이 Μαριαμ 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몇몇 소수의 사본들(κ , (L), ψ 등)처럼 Μαριαμ 을 지지하는지는 알 수 없다.

4.4. 분석

매우 작은 파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일 독법이 한 개 발견된다. 19:18에서 NA의 본문인 $\delta\upsilon\omicron\ \epsilon\nu\tau\epsilon\upsilon\theta\epsilon\nu\ \kappa\alpha\iota\ \epsilon\nu\tau\epsilon\upsilon\theta\epsilon\nu$ 이 ¶121의 공란의 크기에 맞지 않으며, 이 구절에 해당하는 다른 독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재구성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알려진 독법이 아닌 다른 독법이 이 공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이 필사자의 실수에 기인하는 단일 독법을 증거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25에서 ¶121의 뒷면 첫 줄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점과 선이 Κλωπα και μαρια 의 일부와 잘 들어맞는다. 다만 이 사본은 Κλωπα 를 Κλοπα 로 쓴 것 같다.

거룩한 이름들은 두 개 발견된다. 19:26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뒷면 두 번

째 줄에 $\overline{\iota\epsilon}$ 가 있고, 같은 절에 해당하는 뒷면 네 번째 줄에 $\mu\alpha\tau\tau\iota$ 의 약자인 $\overline{\mu\tau}$ 가 보인다. 이 밖에 또 하나의 약어의 흔적이 있다. 19:18에 해당하는 앞면의 세 번째 줄에 “윗줄”의 흔적이 있는데, 거룩한 이름의 축약을 표시하는 이 흔적과 공란의 크기로 보아 이 사본은 $\epsilon\sigma\tau\alpha\upsilon\rho\omega\sigma\alpha\nu$ 을 축약하여 쓴 것으로 판단된다.

4.5. 특징

비록 하나의 이문 밖에 보이지 않지만, 워낙 작은 크기의 과편이기 때문에 이 사본이 “순수한 본문”과 “엄격한 필사 전송”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본문비평적으로 평가하기에 $\mathfrak{P}121$ 에서 읽을 수 있는 본문의 양이 너무나도 적다.

5. 파피루스 122번($\mathfrak{P}122$): P. Oxy. 4806²⁵)

5.1. 개요

4/5세기의 사본으로 앞면에는 요한복음 21:11-14, 뒷면에는 22-24절의 일부가 실려 있다. 3세기의 사본들인 $\mathfrak{P}59$ 와 $\mathfrak{P}109$ 와 더불어 몇 안 되는 요한복음 21장의 사본이다. 앞의 사본들과 마찬가지로 코텍스에서 떨어져 나온 낱장의 일부인데, 가운데가 사선으로 잘려있다. 밑의 여백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한 면의 아랫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코텍스의 크기는 가로 약 12cm, 세로 약 28cm로 추정되며, 이는 $\mathfrak{P}121$ 의 경우와 같다. 각 행에는 약 25-27개의 글자가 적혀 있었을 것이다. 앞면과 뒷면 사이의 본문을 채워 넣는다면, 한 면은 약 44-45행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사본의 좌우가 손상되었고, 각 행마다 평균 26개의 글자 가운데 대략 6-9개만 남아 있기 때문에, 또한 오른쪽 끝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본문의 재구성이 쉽지는 않다. 문체는 곧게 선 두툼한 대문자로, 가로획이 세로획보다 미세하게 굵은 전문 필사자의 것이다. 대략 4/5세기의 것으로 보인다.

5.2. 이문

25) 이 사본의 초판(editio princeps)은 J. Chapa, “4806, Gospel of John XXI 11-14, 22-4”, *The Oxyrhynchus Papyri*, vol. 71, 11-14이다.

5.2.1. 탈락

¶122에 발견되는 세 개의 이문 단락 가운데 두 개가 탈락이다. 21:14에서 NA와 일부 사본(B, C, D 등)의 $\overline{\epsilon\phi\alpha\nu\epsilon\rho\omega\theta\eta\ \iota\eta\varsigma\ \tau\omicron\iota\varsigma\ \mu\alpha\theta\eta\tau\alpha\iota\varsigma}$ 에 해당하는 ¶122의 본문에는 $\epsilon\phi\alpha\nu\epsilon\rho\omega\theta\eta\ \tau\omicron\iota\varsigma\ \mu\alpha\theta\eta\tau\alpha\iota\varsigma$ 사이에 $\overline{\iota\eta\varsigma}$ 가 없다. 따라서 W와 같이 $\overline{\iota\eta\varsigma}$ 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물론 이 사본의 본문이 (o) $\overline{\iota\eta\varsigma\ \epsilon\phi\alpha\nu\epsilon\rho\omega\theta\eta\ \tau\omicron\iota\varsigma\ \mu\alpha\theta\eta\tau\alpha\iota\varsigma}$ 이었을 수도 있으나(이 경우에는 치환에 해당한다), 다른 사본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동일어미(homoioteleuton)에 기인한 탈락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생략이 대본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문 단위는 ¶122와 W의 계보적 관련성을 추측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21:24에서 NA의 본문에는 $\overline{\omicron\iota\delta\alpha\mu\epsilon\nu}$ 앞에 $\overline{\kappa\alpha\iota}$ 가 있는데, 오늘날 알려진 거의 모든 사본의 독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122의 본문에서 $\overline{\omicron\iota\delta\alpha\mu\epsilon\nu}$ 앞에 있는 단어는 $\overline{\kappa\alpha\iota}$ 가 될 수 없다. 앞 단어의 마지막 글자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결코 $\overline{\kappa\alpha\iota}$ 의 마지막 글자인 이오타(ι)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사선은 알파(A)나 델타(Δ)나 카파(K)나 람다(Λ)나 키(X)의 흔적이다. 그러나 사선의 길이로 볼 때, 카파(K)나 키(X) 같지는 않다. ¶122에서 이 흔적은 아마도 $\overline{\tau\alpha\upsilon\tau\alpha}$ 의 끝부분인 알파(A)일 것이며, 따라서 $\overline{\kappa\alpha\iota}$ 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의미의 변화는 없다.

5.2.2. 삽입(addition)

¶122에는 하나의 삽입이 발견된다. 21:24에서 일부 사본(B, C, W 등)에는 $\overline{o\ \mu\alpha\theta\eta\tau\eta\varsigma}$ 다음에 관사 호(o)와 $\overline{\mu\alpha\rho\tau\upsilon\rho\omega\nu}$ 사이에 $\overline{\kappa\alpha\iota}$ 가 첨가되어 있는데, ¶122의 공란의 크기는 $\overline{\kappa\alpha\iota}$ 가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overline{\kappa\alpha\iota}$ 가 없는 독법은 공란에 너무 짧다. 따라서 이 사본에도 $\overline{\kappa\alpha\iota}$ 가 첨가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삽입으로 인한 의미의 변화는 없으며, 필사자의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 그러나 W와의 관련성 가운데서 고려한다면, 대본으로부터 온 삽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3. 기타 이문 단위

5.3.1. ¶122가 NA 본문을 지지하는 이문 단위

21:11에서 일부 사본(\mathfrak{m})에는 $\overline{\epsilon\pi\iota\ \tau\eta\varsigma\ \gamma\eta\varsigma}$ 로, 또 다른 일부 사본(D, f^1 , f^{13} 등)에는 $\overline{\epsilon\pi\iota\ \tau\eta\nu\ \gamma\eta\nu}$ 으로 되어 있는데, ¶122는 고대의 우수한 사본들과 더불어 NA의 본문인 $\overline{\epsilon\iota\varsigma\ \tau\eta\nu\ \gamma\eta\nu}$ 을 지지한다(\mathfrak{x} , A, B, C, L, N, P, W, Δ , θ , ψ 등).

ρ122는 비잔틴 본문으로 평가될 수 있는 다수본문의 독법뿐만 아니라 잠정적으로 “서방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D의 독법을 따르지 않는다. 21:13에서는 일부 사본(A, θ, f¹³, m 등)에는 *ερχεται* 다음에 접속사 *ουν*이 첨가되어 있는데, ρ122는 *ουν*이 없는 NA의 본문을 지지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ρ122는 비잔틴 본문이 아니다. 같은 절에서 일부 사본(κ, C, L, ψ 등)에는 *της* 앞에 관사 호(ο)가 첨가되어 있는데, ρ122는 관사가 없는 NA의 본문을 지지한다(B, D, W). 역시 같은 절에서 배자사본 등은 *και διδωσιν* 대신에 *ευχαριστησας εδωκεν*으로 되어 있는데, ρ122는 거의 모든 사본과 함께 *και διδωσιν*이라는 NA의 본문을 지지한다. 21:22에서는 일부 사본(C², θ, ψ, f¹³, m 등)에 *ακολουθει μοι*로 되어 있는데, ρ122는 NA의 본문이 *μοι ακολουθει*를 지지한다(κ, A, B, C*, D, W 등). 여기서 ρ122가 다수본문과 다른 독법을 보여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21:23에서 배자사본에는 *αδελφους*와 *οτι* 사이에 *και εδοξαν*이 첨가되어 있는데, ρ122의 공란에는 이것이 추가적으로 기록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본이 NA의 본문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절의 *ουκ ειπεν δε*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일부 사본(A, D, θ, ψ, f¹, f¹³, m 등)에는 *και ουκ ειπεν*으로 되어 있는데, ρ122는 NA의 본문을 지지한다(ρ59^{vid}, κ, B, C, W 등). 여기서도 ρ122는 비잔틴 계열의 본문을 따르지 않는다. 역시 같은 절에서 일부 사본(D 등)에는 *οτι ουκ αποθησκει* 대신에 *ουκ αποθησκεις*로 되어 있는데, ρ122의 공란의 크기를 고려할 때, *ουκ αποθησκεις*는 너무 짧기 때문에, ρ122는 NA의 긴 독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ρ122가 소위 “서방본문”의 특징을 드러내는 독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 같은 절인 23절에서 일부 사본(κ*, C^{2vid} 등)에는 *τι προς σε*가 없으며, 일부 사본(D)에는 *τι*만 생략되어 있는데, ρ122의 공란의 크기를 보면, 이 사본에는 *τι προς σε*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κ¹, A, B, C*, W, θ, ψ, f¹³, m 등). 어쩌면 서방본문의 특징일 수도 있는 D의 독법인 *προς σε*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5.3.2. ρ122의 본문을 추측할 수 없는 이문 단위

이래와 같이 몇 이문 단위에서는 ρ122의 독법을 재구성할 수가 없다. 21:12에서 바티칸사본에는 *της* 앞에 관사 호(ο)가 생략되어 있는데, ρ122에는 이 부분이 공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της* 앞에 관사 호(ο)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같은 절에서 일부 사본(B, C 등)에는 *ουδεις* 다음에 *δε*가 생략되어 있는데, ρ122의 훼손된 공란에 *δε*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21:14에서 몇몇 사본(κ, L, N, θ 등)에는 *τουτο* 다음에 접속사 *δε*가 있는데,

¶122의 공란에 $\delta\epsilon$ 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런데 NA의 본문처럼 $\delta\epsilon$ 가 없이 본문을 재구성할 경우에는 공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접속사 $\delta\epsilon$ 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나, 그 이상은 단정할 수는 없다. 21:24에서 $\tau\omega\tau\omega\nu$ 다음의 ¶122의 본문을 재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NA의 본문은 $\kappa\alpha\iota\ \omicron\ \gamma\rho\alpha\phi\alpha\varsigma\ \tau\alpha\upsilon\tau\alpha$ 이며, 바티칸사본과 베자사본이 이를 지지한다. 반면 일부 사본(\aleph^1 , θ , f^{13} 등)은 $\omicron\ \kappa\alpha\iota\ \gamma\rho\alpha\phi\alpha\varsigma\ \tau\alpha\upsilon\tau\alpha$ 이다. 또 다른 일부 사본(\aleph^* , A, C, W, ψ , f^1 , \mathfrak{m} 등)에는 관사 \omicron (o) 없이 $\kappa\alpha\iota\ \gamma\rho\alpha\phi\alpha\varsigma\ \tau\alpha\upsilon\tau\alpha$ 이다. ¶122의 공란에는 세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하다.

5.4. 분석

¶122에는 두 차례에 걸쳐 이오타시즘이 발견된다. 21:22에 해당하는 뒷면 네 번째 줄과 23절에 해당하는 뒷면 여섯 번째 줄에 엡실론-이오타($\epsilon\iota$) 대신에 이오타(ι)가 사용되었다($\alpha\kappa\omicron\lambda\omega\theta\epsilon\iota \rightarrow \alpha\kappa\omicron\lambda\omega\tau\iota / \epsilon\kappa\epsilon\iota\nu\omicron\upsilon \rightarrow \epsilon\kappa\iota\nu\omicron\upsilon$). 또한 뒷면 네 번째 줄에서는 θ 와 τ 의 혼동으로 $\alpha\kappa\omicron\lambda\omega\theta\epsilon\iota$ 가 $\alpha\kappa\omicron\lambda\omega\tau\iota$ 로 표기되었다(21:22). 그 밖에도 21:12에 해당하는 앞면 다섯 번째 줄에서 $\delta\epsilon\upsilon\tau\epsilon$ 가 $\delta\epsilon\upsilon\tau$ 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다음 단어 앞에서 전 단어의 마지막 모음인 엡실론(ϵ)이 탈락한 경우이다. 철자법과 관련하여 또 하나 특기할 점은, 21:11에서 153이 문자($\acute{\epsilon}\kappa\alpha\tau\omicron\nu\ \pi\epsilon\nu\tau\acute{\eta}\kappa\omicron\nu\tau\alpha\ \tau\rho\iota\omega\nu$)가 아니라, 알파벳 숫자($\overline{\rho\nu\gamma}$)로 기록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초기 기독교문서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²⁶⁾

¶122에는 하나의 단일 독법이 발견된다. 21:24에서 $\omicron\iota\delta\alpha\mu\epsilon\nu$ 앞에 $\kappa\alpha\iota$ 가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데,²⁷⁾ 부주의로 인한 필사자의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

거룩한 이름들이 ¶122에 두 개 발견된다. 21:12에 해당하는 앞면 다섯 번째 줄에 $\overline{\iota\eta\varsigma}$ 의 일부가 보이며, 13절에 해당하는 앞면 여덟 번째 줄에 $\overline{\iota\eta\varsigma}$ 가 온전하게 보인다. 이 밖에도 12절에 해당하는 앞면의 일곱 번째 줄 공란과 23절에 해당하는 뒷면의 일곱 번째 줄 공란에 각각 $\overline{\kappa\varsigma}$ 와 $\overline{\iota\eta\varsigma}$ 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5. 특징

26) C. H. Roberts, *Manuscript, Society and Belief in Early Christian Egyp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18-19.

27) 위의 “생략”을 참조하라.

앞의 세 사본보다 상대적으로 후기인 4/5세기의 사본인 $\mathfrak{P}122$ 에는 두 개의 탈락 단락과 한 개의 삽입 단락이 발견되며, 그 밖의 이문 단위에서 $\mathfrak{P}122$ 는 NA의 본문을 지지한다. 그런데 한 개의 탈락(14절에서의 $\overline{\eta\varsigma}$)과 한 개의 삽입(24절의 $\kappa\alpha\iota$)이 대본에서 온 것이라면, 이 사본의 필사자는 대본을 매우 엄격하게 필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mathfrak{P}122$ 는 소위 “서방본문”이라고 할 만한 독법(21절과 23절의 D의 독법 등) 뿐 아니라 비잔틴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독법(21:11, 13, 22 등의 \mathfrak{m} 의 독법)을 따르지 않는다. 다만 21:14에서 $\mathfrak{P}122$ 는 오직 W와 함께 $\epsilon\phi\alpha\upsilon\epsilon\rho\omega\theta\eta$ 와 $\tau\omicron\iota\varsigma\ \mu\alpha\theta\eta\tau\alpha\iota\varsigma$ 사이에 $\overline{\eta\varsigma}$ 가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본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할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24절에서도 B, C, W와 함께 관사 호(\omicron)와 $\mu\alpha\rho\tau\upsilon\rho\omega\nu$ 사이에 $\kappa\alpha\iota$ 가 첨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 밖의 구절들(13절의 관사 \omicron 의 삽입이나 οὐκ εἶπεν ὁε 등)에서도 $\mathfrak{P}122$ 는 W와 같은 독법을 증거한다는 점에서 두 사본의 계보적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mathfrak{P}122$ 의 대본은 “통상적인 본문”을 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본의 필사 방식은 “엄격한 필사 전승”에 속한다.

6. 나가는 글

최근에 발표된 옥시링쿠스 사본들 가운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네 개의 사본이 본문비평적으로 분석되었다.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출판된 사본들 가운데 요한복음 사본은 총 19개인데, 마태복음 사본과 더불어 가장 많다. 적어도 당시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더불어 요한복음이 널리 읽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분석된 네 사본이 모두 앞면과 뒷면에 요한복음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코덱스의 일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 문헌의 경우, 매우 초기부터 코덱스 책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큰 그림을 뒷받침한다.²⁸⁾

위에서 연구된 네 파피루스 사본 모두에서 “서방본문” 또는 비잔틴본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원후 2세기부터 “서방본문”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 또한 비잔틴본문의 특징을 보이는 초

28) 초기 기독교인들이 코덱스를 선호한 현상과 이유에 대해서는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38-144을 보라. 또 다른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D. C. Barker, “Codex, Roll, and Libraries in Oxyrhynchus”, *Tyndale Bulletin* 57 (2006), 131-148을 보라. 그 밖에도 H. Y. Gamble, *Books and Readers in the Early Churc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42-81을 보라.

기 사본들 역시 매우 초기부터 발견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초기 본문의 주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간간히 특정한 사본들 사이의 관계가 발견되나, 네 개의 요한복음 파피루스 사본은, 초기에는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본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또한 네 개의 초기 사본에는 교리적인 이유로 인한 변개는 물론 본문을 설명하거나 주석하려는 의도적인 변개도 발견되지 않는다.²⁹⁾ 각 사본에서 발견되는 이문들은 거의 필사자들의 단순한 실수에 기인하며, 본문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소한 것들로, 당시 필사자들에게 허용되었던 정도의 범위에서 변개가 일어났다. 그들은 대본의 본문을 필사하는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였다.

단편사본에 대한 본문비평적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사본들로, 아직까지 학계에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본들은 대단히 많다. 지금까지 약 5,000여 조각이 발표되었고, 그 가운데 약 1%인 50개가 신약성서 단편사본인데, 앞으로 수 백 년에 걸쳐 약 10배에 달하는 단편들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술적으로 약 500개의 신약성서 단편사본들이 본문비평적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본들에 대한 연구는 본문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대폭 확장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초기의 본문을 회복하는 데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Keywords)

옥시링쿠스, 단편사본, 본문비평, P119(P. Oxy. 4803), P120(P. Oxy. 4804), P121(P. Oxy. 4805), P122(P. Oxy. 4806), 요한복음, 필사습관.

Oxyrhynchus, fragmentary papyrus, textual criticism, P119(P. Oxy. 4803), P120(P. Oxy. 4804), P121(P. Oxy. 4805), P122(P. Oxy. 4806), the Gospel of John, scribal habits.

(투고 일자: 2013년 8월 4일, 심사 일자: 2013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13년 8월 27일)

29) 고의적인 변개에 대해서는 메쯔거, 『사본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237-250을 보라.

<참고문헌> (References)

- 민경식, “초기 신약성서 단편사본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신약논단』 12 (2005), 157-196.
- 민경식,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의 가치와 전망”, 『성경원문연구』 22 (2008), 7-21.
-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헬라어에서 한글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
- Aaland, B., “Krierien zur Beurteilung kleinerer Papyrusfragmente des Neuen Testaments”, A. Denaux. ed.,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nd Exegesi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2, 1-13.
- Aaland, B., “Der textkritische und textgeschichtliche Nutzen früher Papyri: demonstriert am Johannesevangelium”, W. Weren and D.-A. Koch, eds., *New Developments in Textual Criticism: New Testament, Early-Christian and Jewish Literature*, Assen: Royal Van Gorcum, 2002, 19-38.
- Aland, K. and Aland, B.,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2.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 Barker, D. C., “Codex, Roll, and Libraries in Oxyrhynchus”, *Tyndale Bulletin* 57 (2006), 131-148.
- Bowman, A. K., et all (eds.), *Oxyrhynchus: A City and Its Text*, London: Egypt Exploration Society, 2007.
- Chapa, J., “4803-4806. New Testament: Gospel of John”, *The Oxyrhynchus Papyri*, Vol 71, London: British Academy for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 2007, 1-14.
- Colwell, E. C., “Method in Evaluating Scribal Habits: A Study of P45, P66, P75”, *Studies in Methodology in Textual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69, 106-124.
- Comfort, P. W., “New Reconstructions and Identifications of New Testament Papyri”, *Novum Testamentum* 41 (1999), 214-230.
- Elliott, J. K. “Five New Papyri of the New Testament”, *Novum Testamentum* 41 (1999), 209-213.
- Epp, E. J., *The New Testament Papyri at Oxyrhynchus in Their Social and Intellectual Context*, Leiden: E. J. Brill, 1997.
- Epp, E. J., “The Oxyrhynchus New Testament Papyri: ‘Not Without Honor except in Their Hometow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3 (2004), 5-55
- Gamble, H. Y., *Books and Readers in the Early Churc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Head, P. M., “Some Observations on Early Papyri of the Synoptic Gospels, especially concerning the ‘Scribal Habits’”, *Biblica* 71 (1990), 240-247.

Head, P. M., “Some Recently published NT Papyri from Oxyrhynchus: An Overview and Preliminary Assessment”, *Tyndale Bulletin* 51 (2000), 1-16.

Head, P. M., “The Habits of New Testament Copyists: Singular Readings in the Early Fragmentary Papyri of John”, *Biblica* 85 (2004), 399-408.

Metzger, B. M., 『사본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64).

Min, K. S., *Die früheste Überlieferung des Matthäusevangeliums (bis 3./4. Jh.): Edition und Untersuchung*, Berlin: Walter de Gruyter, 2005.

Roberts, C. H., *Manuscript, Society and Belief in Early Christian Egyp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Royse, J. R., *Scribal Habits in Early Greek New Testament Papyri*, New Testament Tools, Studies and Documents 36, Leiden: E. J. Brill, 2007.

<Abstract>

**Textual-Critical Observations on Recently Published Oxyrhynchus
NT Papyri : P119, P120, P121, and P122**

Prof. Kyoung Shik Mi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extual-critically some fragmentary NT papyri. The researches on NT papyri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were restricted mainly to the so called “big papyri”, i.e. Chester Beatty and Bodmer Papyri (P45, P46, P47, P66, P72, P75), because we in those days developed no proper method to analyse fragments. At the turning of the century, fragmentary papyri began to gain interest in the NT scholarship, and resultingly, several researches on fragmentary NT Papyri have been published. Most of them, however, are limited to the level of general introductions, which could not make the fragments useful as individual textual-critical evidences.

On the basis of this context, we tried not only to study scribal habits, but also to inquir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ir texts and their meaning as a group as well. Furthermore, we attempted to evaluate each individual fragmentary papyrus textual-critically, so that they may be useful evidences so much as the so called “big papyri”, not only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text, but also to reconstruct the so called “original” text.

This should be just an example study to explore the world of early fragmentary NT papyri, and is expected to stimulate further researches on this field.